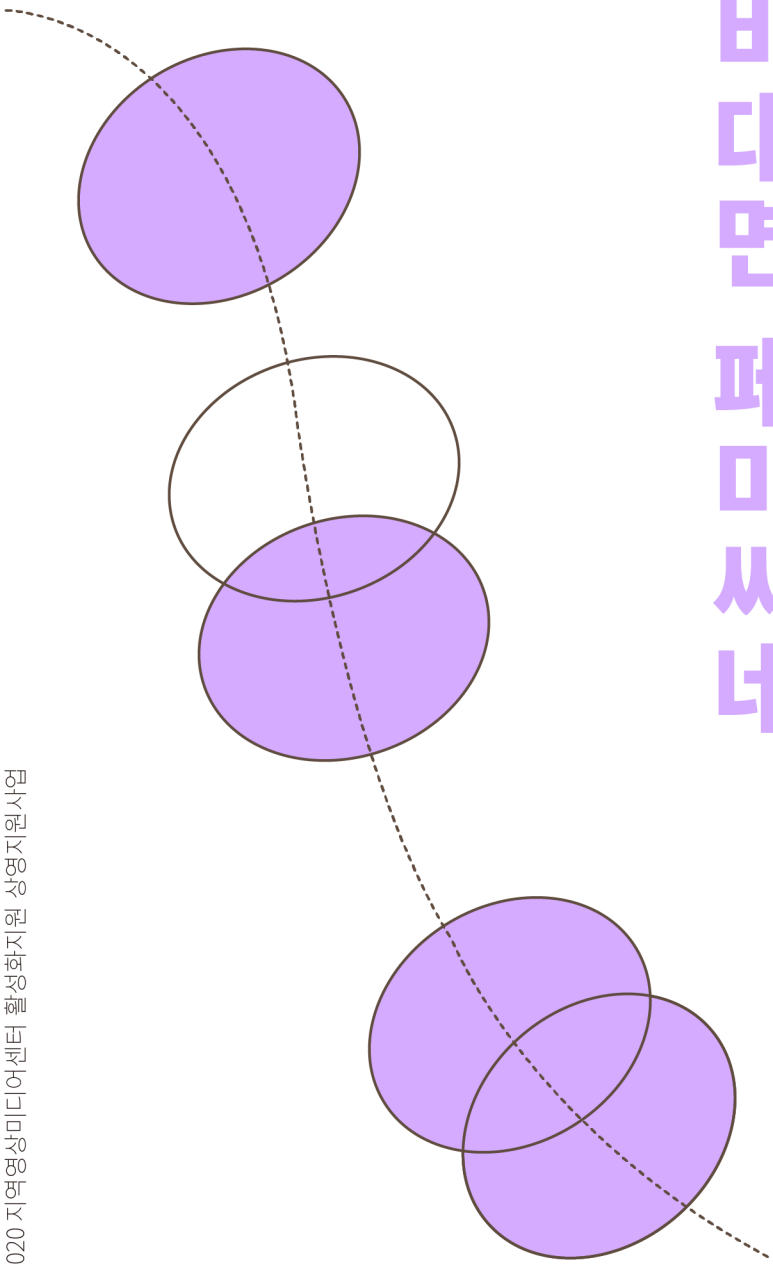


# 비대면 페미씨네

202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지원 상영지원사업



# 목차

---

## 비대면 페미씨네 소개 2

---

### 첫 번째 주제 나의 몸, 나의 선택

영화 소개 <거털소녀 김봉어>, <츄뽀브라> 3

나눈 이야기 4

해시태그 + 한 줄 카피 12

추천해주고 싶은 대상 + 함께 보면 좋을 콘텐츠 14

---

### 두 번째 주제 일하는 여자들

영화 소개 <뽕브를 잠근다>, <여름방학숙제> 16

나눈 이야기 17

해시태그 + 한 줄 카피 27

추천해주고 싶은 대상 + 함께 보면 좋을 콘텐츠 29

---

### 세 번째 주제 Girls, be ambitious!

영화 소개 <하고 싶은 아이>, <셔틀런> 31

나눈 이야기 32

해시태그 + 한 줄 카피 39

추천해주고 싶은 대상 + 함께 보면 좋을 콘텐츠 41

---

### 네 번째 주제 이름을 잃어버린 중년

영화 소개 <상주>, <미세스 로맨스> 43

영화 <상주> 감독과의 대화 44

---

참여자 소감 52

# 비대면 페미씨네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본이 된 사회. 영화관에 가는 횟수는 줄고, 도서관에서 진행하던 각종 상영회도 모두 취소된 상황입니다. 물론 집에서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OTT 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함께 수다 떨고 싶은 이 기분! 이 영화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영화를 더 깊게 기억하고 싶은 이 마음! 다들 한 번씩 느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비대면 페미씨네는 “영화는 각자, 수다는 함께”라는 기조로 온라인 여성영화 플랫폼 퍼플레이와 협력하여 총 네 가지 주제로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나의 몸, 나의 선택’, ‘일하는 여자들’, ‘Girls, be ambitious!’, ‘이름을 잃어버린 중년’이라는 각 주제에 이야기감이 되는 단편 영화 두 편씩을 선정하고, 영화의 감상과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가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영화를 보고, 화요일 저녁마다 온라인에서 만났어요.

이 자료집은 그 뜨거웠던 여름의 기록이자,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비대면 페미씨네]와 함께 여성영화 수다, 시작해볼까요?

## 일정 안내

차시	날짜	주제	함께 볼 영화
1	8월 4일	오리엔테이션	
2	8월 11일	나의 몸, 나의 선택	<겨털소녀 김봉어> <춤춰브라>
3	8월 18일	일하는 여자들	<벨브를 잠근다> <여름방학속제>
4	8월 25일	Girls, be ambitious	<셔틀런> <하고 싶은 아이>
5	9월 1일	이름을 잃어버린 중년	<상주> <미세스 로맨스>

우리사회는 유독 여성의 몸에 제약을 가하고 특정 기준을 세워 통제한다. ‘여자가 털이 왜 이렇게 많아?’ ‘브래지어 안 했어?’ ‘바지가 왜 이렇게 짧니?’ 등의 질문은 사회가 여성의 몸을 구속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에 맞서 ‘여성의 몸에는 어떠한 규정도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유풀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전하는 영화들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미리 볼 영화

겨털소녀 김봉어

정다히, 권영서 | 2017년 | 대한민국 | 애니메이션 | 7분 | 전체이용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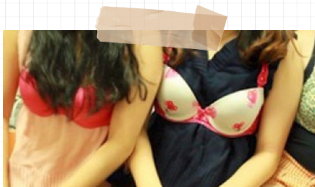


- #몸
- #성장
- #비밀
- #스포츠
- #히어로

14살 소녀 김봉어는 수명실습을 받은 후 학교 사위장에서 자신의 겨드랑이에서 털이 자라는 것을 발견한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나는 겨드랑이 털에 당황한 봉어. 설상가상으로 짝사랑하는 수혁이에게 털의 존재를 들리게 되자 결국 봉어는 털을 잘라내기로 한다. 하지만 봉어의 겨드랑이에 딱 붙어 하나의 생명체처럼 행동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털은 쉽게 잘리지 않는데.... 그렇게 거털과 봉어의 한 판 승부가 시작된다.

츄츄브라

이푸른 | 2016년 | 대한민국 | 다큐 | 11분 | 12세



- #페미니즘
- #몸
- #나
- #노브라

<츄츄브라> 속의 여성들은 브래에 관한 서로 다른 감정들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호피 무늬 브라, 망사 브라, 난닝구 브라를 좋아하는 여성들과 또 브라를 하지 않는 여성도 있다. 이들이 브라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모두 다르지만 동시에 하나의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왜 브라는 밖으로 보이면 안 되지? 이제 모두 당당하게 브라를 내놓고, 츄츄브라!

진행 푸름

기록 코알라

참여 혜진, 노수인, 준, 부영이, Nala, 달그락, 마르티나, 희우, 심효선, 미카엘라,  
폴로, 김청화, 김혜민, 문소진

**푸름** 오늘 영화 두 편은 여성의 몸에 관한 단편 작품들이다. 먼저 <겨털소녀 김봉어>부터 이야기 나눠보자. 이 영화는 여성 청소년의 성장통으로도,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

**혜진** 2차 성징과 관련된 소녀의 고민을 판타지로 풀어내서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었다. 겨털을 자르려고 할 때 겨털이 자아를 가지고 ‘털털털’하며 거부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았고, 좀 공포스럽기도 했다. 봉어가 당당한 모습으로 물에 빠진 짝사랑남을 구해주는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수영으로 겨털과 협동해 구출작전을 펼치고, 소위 말하는 ‘공주님 안기’ 자세로 구하는 게 좋았다. 나약한 여성과 강인한 남성 클리셰를 비판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 보였다.

보통 남성들은 겨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봉어 같은 여성들은 어떤 '계기'가 없으면 겨털을 긍정적이거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영화는 판타지라 재미는 있었지만 현실의 내 몸에 이입해서 보았을 때 공감하기 어려웠고, 제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에 대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느꼈다.

**노수인** 관심 있던 주제라 재미있게 봤다. 미디어에 겨털이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겨털의 존재를 시각자료로 만든 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색,계'도 볼 수 없는 어린 친구들에겐 더더욱(웃음). 제가 어릴 땐 정말 그런 콘텐츠가 없어서, 이 영화의 서사가 어땠든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자체로 위로가 되지 않았나 싶다.

**푸름** 미디어에서 겨털이 등장할 땐, 남성은 남성미로 여성은 개그요소로 나타났던 것 같다.

**준** 이전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온 내 몸이 낯설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해지는 2차 성징 시기의 정서를 짧은 러닝 타임 안에서 충실히 다루고 있어 좋았다. 그리고 유머를 잃지 않는다는 점도. 털에 자아가 있다니! 옛날 앨범 속 사진을 통해 주인공 붕어만큼이나 풍성한 겨털을 뽑내는 소녀 시절의 엄마 모습을 보여주는 엔딩크레딧도 유쾌했다.

다만, 엄마가 상심한 주인공을 위로하는 장면은 주제 전달 방식의 측면에서 조금 아쉬웠다. 털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털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공들여 빗질을 하고 에센스를 발라주는 식의 이미지는 구태의연하고 낡았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몸단장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연출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공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장치였을 것이다. 엄마의 따뜻한 위로는 붕어가 짝사랑했던(부디 과거형이길 바란다.) 남학생의 비웃음과는 대조적이니까. 그래도 이 장면처럼 극중에 여성 연장자가 다음 세대의 여성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했다.

**푸름** 엄마가 붕어를 위로해주는 장면이 따뜻하면서도 아쉬웠던 게, 우리 붕어 예쁘네라는 말이었다. 겨털이 있어도 없어도 여성은 예뻐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영이** 한편의 히어로물 같은 전개와 구성, 그리고 그에 걸맞는 박진감이 마음에 들었다. 겨털이는 귀여웠고(웃음), 붕어가 처음 겨털을 자르려고 했을 때 겨털이가 가위를 피하는데, 만약 피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붕어는 겨털을 자르고 남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 장면이 흥미로웠다. 목소리 연기는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수영이라는 종목이 성별과 상관없이 기록 향상을 위해 제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른 종목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그럼에도 유아나 청소년 대상으로 정말 좋은 시청각자료다!

**Nala** 성장기 몸에 대한 고민을 유쾌하게 잘 풀어낸 영화, 캐릭터도 색감도 귀여웠고 따뜻한 영화였다. 겨털이 자아를 가지고 살면서 겨털을 자르려고 했을 때 가위를 튕겨내는 장면을 보며 내 경험이 떠올랐다. 처음에 겨털 나고 나서 뽑아야 되나 잘라야 되나 고민했을 때, 거드랑이가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고 내 몸에 도구를 대려고 하니 잘 안 됐다. 그 때 겨털이 내 손을 뿌리치는 듯한 느낌이 영화에 잘 표현되어서, 심리와 경험을 현실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느꼈

다. 의인화를 넘어서 거털이 히어로가 되었는데, 너무 낯설고 따라가기 힘든 감각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다(웃음). 그래도 거털에 대한 청소년의 고민을 얘기하는 콘텐츠가 없으니 재밌게 유쾌하게 잘 풀어낸 이 자료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달그락** 저도 앞에 분들과 비슷한 의견인데, 사춘기 교육 때도 받아보지 못했던 거털의 존재감을 이렇게 다뤄준 애니메이션이라 의미가 있었다. 인상 깊었던 장면이 날개로 펼쳐지는 거털이 등장하는 부분이었는데, 덕분에 겨드랑이 털의 역할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을 해 봤다. 그런 날개나 지느러미 역할을 하면 좋았을텐데...(웃음) 좋았던 장면은 딸이 거털 때문에 고민하는 걸 알고 난 후에도 우박지르거나 교육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빗질해주면서 특이한 거털 형질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주는 모녀의 장면이었다. 저도 어린 딸아이가 있는데 아직 거털의 존재를 모르는 딸아이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거털을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게. 주인공이 남자애를 구하는 영웅적인 장면이 딸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여성상으로 남을 수 있을 거 같다.

**마르티나** 겨드랑이 털이 처음에는 싫어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었다가 나중에 특별한 것이 되는데, 이상함과 특별함의 차이가 정말 좋은 한 장 차이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짧은 애니메이션이었는데도 재미있게 보았고 기억에 남았다. 어머니 역할이 너무 부엌에만 있는 전형적인 어머니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웠다.

**희우** 정말 귀엽고 높은 퀄리티라서 감탄하며 봤다. 특히 주인공 봉어의 감정이 잘 담겨 있어서 공감도 하고, 제 어린 시절도 투영하며 보게 되었다. 봉어가 혼란스러워하고, 남들과 나는 다르다는 생각에 좌절도 하고 어두운 방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엄마의 역할이지만 앞서서 경험한 경험자로서 연대해주는 느낌으로 엄마가 방에 들어왔고, 그 때 방 안에 빛이 들어가는 장면이 인상적이고 좋았다. 또 거털이 자아가 있다는 설정이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자아가 사라지는 느낌이라 아쉬웠다. 봉어가 수혁이를 구하면서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걸로 나오는데, 자아가 있는 거털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풀어가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란 생각을 해봤다.

**푸름** 봉어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거털이에게 끌려가다보니(웃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심효선** 앞에서 해주신 얘기에 저도 공감한다. 지금까지 거털과 관련한 콘텐츠가 없었고, 특히 애니메이션으로 다뤄져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도 좋았다. 그런데 2차성징은 누구나 겪는 건데 히어로물로 비춰지는 게 아쉬웠기도 했다. 김봉어 친구만 유독 길고 자아가 있는 거털이 있어서, 거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도 남들과 다른 걸로 보이는 게 좀 아쉬웠다. 인상 깊었던 건 좋아하는 친구의 비웃음 때문에 거털을 자르기로 결심한 장면이었다. 2차 성징을 겪으면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지는 게 보통 남의 시선 때문이었던 거 같아 거기서 많은 공감이 되었다.

**미카엘라** 운동하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장면이 없어서 편하게 볼 수 있었고, 애니메이션이 너무 귀여웠다. 엄마와 딸이 옛 앨범을 함께 보는 장면에서 어머니의 이해와 격려를 통해 봉어가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훨씬 편해 보여서 인상적이었고, 과거에 봉어와 같은 경험을 한 어머니가 있음을 통해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이야기임을 보여주어서 좋았다.

**김청화** 나의 청소년기를 떠올리면서 그 시절을 견뎌낸 나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영화였다. 거털을 창피해하는 현실과 그걸 제거하는 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일부분으로 함께 가는 마무리도 좋았다. 거털이 자아를 가지고 가위를 거부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평소 남자들로부터 느껴지는 시선을 연상시키는 소년의 시선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다.

**김혜민** 나에게 거털은 무엇일까 생각했다. 남들보다 도드라져 보이고 나를 위축시키는 나만의 단점은 누구나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주인공 봉어처럼 단점을 잘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싶었다. 봉어 엄마가 거털을 빚어주면서 ‘에센스도 바를까?’하는 장면이 봉어의 콤플렉스를 인정해주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고 개그도 보여서 좋았다. 거털이 남들은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소재인데, 이걸 주인공 인생 최대의 악몽으로, 또 인생의 날개로 묘사한 점도 좋았다.

**문소진** 겨드랑이 털에 대한 색다른 접근이었다. 여성의 외관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주는 영화라고 생각했다. 봉어가 남자 아이를 구해주면서 겨드랑이 털이 날개가 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터부시되는 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표 현되어 좋았다. 모든 청소년들이 고민할 문제인데 희망적으로 풀어낸 점이 좋았고, 하나 궁금했던 건 영화 속 엄마의 겨드랑이 털이 영화 끝날 때까지 보이지 않았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엄마도 주인공과 같은 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엄마의 털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푸름** 그것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다양한 시각으로 영화를 읽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럼 이제 <춤춰브라>이야기를 해보자. 경쾌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큐멘터리이다보니 다들 재미있게 보셨을 거 같다.

**심효선** 제일 좋았던 건 엔딩 장면이었다. 다들 브라를 속에만 입다가 엔딩에서는 브라를 옷 위에 입고 춤을 추는데 그게 되게 자유로워보였고, 옷 밖으로 브라가 나와있는 장면에서 브라가 액세서리로 보였다. 그건 결국 브라도 개인의 선택이란 뜻이라서 확 와닿고 좋았다. 그런데 앞에 브라에 대한 인터뷰가 좀 불편하기도 했다. 남자친구가 호피 무늬 브라를 선물해줬다거나 색시함으로 브라를 설명하는 내용이 좀 아쉬웠던 거 같다.

**희우** 저도 재미있게 봤다. 춤추는 장면도 참 좋았고, 브래지어 벗는 장면에서 뒷모습을 보여줄 때, 살에 남겨진 브라의 흔적이, 그간 당연히 생각해왔는데 그런데 내 몸에 남겨져왔다는 걸 제 3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큐가 짧다보니 깊은 이야기까지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다. 대부분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인터뷰였는데 영화는 편집이 되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도 있었다.

**마르티나** 세대를 넘나드는 브래지어의 이야기라 좋았다.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버스처럼 나와서 신선했고, 할머니 얘기가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짧아서 아쉬웠다. 지금 젊은 세대와 비교해서 여러 세대 여성의 이야기가 더 나왔으면 흥미로웠을 거 같다. 브라를 안 해도 불안하지 않고 당연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달그락** 제목과 시놉을 봤을 때는 브라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이야기가 골고루 담겨서 인상적이었다. 반면에 짧은 시간에 인터뷰를 듣다 보니 산만한 느낌이 있어서 유형별로 나눠졌으면 어땠을까 싶었던 생각도 했다. 저도 인상 깊었던 대사가 ‘브라 안해도 불안하지 않고 당연한 세상이 과연 올까요’라는 내용이었다. 요즘 와 이어리스 브라, 운동복 브라같이 점점 편해지면서 옷태를 살리는 브라들이 많아졌는데,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직 저는 좀 버거웠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니까 노브라라고 하면 이상한 판타지를 품고 있는 네티즌들에게 보여주면

서 평범한 여성의 생각들을 알려주고 싶었다.

**Nala** 저도 재밌게 보면서도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시 생각해봤을 때 오히려 이 인터뷰 내용들이 뉴스 인터뷰처럼 정리된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가감없이 나타내서 좋기도 했던 거 같다. 그러면서 브라가 가슴이랑 몸을 가리기 위해 꼭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억압이다 하는 식으로 찬반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억압이기도 하면서 다른 의미도 지닐 수 있고, 액세서리일 수 있다는 고민을 다 나열한 게 좋았다. 제일 마지막에 숨겨야 한다는 브라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볼 때 예쁘고 아름다운 선이 아닌 자연스러운 몸을 표현하는 걸 봤을 때 억압의 경험에서 해방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푸름** 마지막 씬이 해방감을 맛보게 한다는 게 딱 맞는 듯하다. 그 장면에서 어떤 분들은 겨드랑이털이 보이게 놔두기도 했고, 남성도 브라를 입고 함께 춤추기도 해서 보면서 자유롭고 해방감이 느껴졌다.

**부영이** 사회적 시선 때문에 쉽지 않은 노브라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 세대에는 노브라가 디폴트였다는 게 충격적이었고, 마지막 춤추는 장면이 가장 좋았다. 아무래도 2016년 작품이라 조금 오래된 느낌이 들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분들의 인터뷰는 성적 대상화를 긍정하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기도 했다. 물론 세상이 좀 나아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걸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신체에 비해 가슴이 크거나 과체중이거나 혹은 모유수유를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기능적으로 브래지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짧은 다큐이다보니 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나 억압에 대해 집중하기 위해 다른 부분은 편집된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준** 브라는 친구들이나 엄마랑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다. 착용을 해도 착용을 하지 않아도 불편한 물건이라는 데에는 모든 여성들이 다 공감할 것이다. 인터뷰 형식의 강점이 두드러졌다. 실생활과 밀착된 생생한 경험담이 이어져 고개를 끄덕이는 대목이 많았다. 특정 관점에 맞춰 짜임새를 맞춘 다큐는 아니라 조금 산만하기는 했으나 실사용자인 여성의 입을 통해 브라에 대해 말한다는 지점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브라 때문에 겪었던 불쾌한 일들, 브라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복합적인 감정까지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가치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인터뷰에 응한 다양한 여성들은 브라 착용의 계기와 시점, 선호하는 디자인과 상표, 해당 브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각기 다른 답을 내놓는다. 브라는 필수품이 아니라 사회가 여성에게 부과해 온 문화적인 산물이며, 동시에 상품이다. 한 인터뷰이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브라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음을 토로했다. 최근 들어 업계에서도 여성들의 달라진 니즈를 감지하여 소재와 기능성에 주력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사실 이를 구매하려면 마트용으로 대량생산된 와이어 브라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소득 수준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몸에 좋은 브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 앞으로 브라의 경제적인 측면, 혹은 소비재로서의 브라를 다루는 콘텐츠들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노수인** 영화는 앞에 나누신 얘기들에 대부분 공감한다. 예전에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남성과 같이 걸으면서 ‘요즘 언니들 왜 이렇게 헐벗고 다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퐁퐁 싸매는 것에 대한 해방으로 노브라 운동을 했던 것과 다르게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노브라 운동 응원한다면서 댓글 다는 걸 보면서, 외부인들의 인식 변화도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또 앞서 인터뷰이들이 성적대상화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에 대한 불편함을 나눠주셨는데, 저도 처음 봤을 때 불편했다. 하지만 보고 나서 저를 봤을 때 개개인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거대한 대상화의 파도에 맞서는 게 영웅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의 욕망도 있으니까. 저도 예뻐 보이고 싶어서 머리도 기르고 안경도 안 쓰고(웃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푸름** 가부장제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싫든 좋든 그런 문화를 답습해 왔을 것이다. 지금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혜진** 보면서 이갈리아의 딸들이 생각났다.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이 바뀐 다른 세계를 그린 소설인데, 거기선 남자들이 정조대 하고 다니는 게 나온다. (부영이 : 폐호!) 읽으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여자들도 미용을 목적으로 브라를 하는데 남자들은 왜 정조대를 안 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여자들은 가슴 치진다고 브라를 하게 하면서 남자들은 불알이 처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이 아예 없다는데서 분노가 막 차오르기도 했다(웃음). 저도 어릴 때부터 브라를 했는데, 청소년 브라부터 답답했다. 그나마 최근에는 와이어 없는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브라가 미용 목적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적인 제

품이 많이 출시되면 좋겠고,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브라를 하고 있지 않을 때도 생기는 브라 자국이 마치 문신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평범한 여성이 되려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해야 하다니... 또 브라 착용 전통이 오래되진 않았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지만 할머니 세대에도 아니었던 사실이 놀라웠다. 다시 안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미카엘라** 앞에 해주신 분들의 이야기에 공감한다. 여성에게 브래지어를 의무 지우는 세상의 시선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작품이었다.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할머니가 40대에 딸이 사다 주어서 처음 브래지어를 입어봤다고 하시면서 그 이 유가 유두가 보이는 게 싫어서라고 하는 장면이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코르 셋을 권하는데 그게 선의에서 비롯된다는 게 슬프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른 분들 말씀처럼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 엔딩 에서 신나게 춤추는 장면이 좋았다.

**김혜민** 평생 여성에게 따라다닐 꼬리표인 브라를 고찰하는 영화였다. 브라는 하이힐 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많은 공감을 했고, 솔직한 이야기를 유쾌 하게 풀어낸 점도 좋았다.

**김청화** 브라를 벗어 던지고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니는 세상이 왔 으면 좋겠다. 저부터 실천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저도 브라를 벗고 난 뒤 몸 에 남아 있는 살이 눌린 자국이 눈에 깊이 박혔다. 브라는 여자의 몸에 자국 까지 남기는 억압으로 보였다. 그리고 “남자의 성기가 두드러져 보인다고 해 서 그걸 가리고 다니라고 하지 않는다”는 발언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여자 라는 이유만으로 신체의 일부를 강제로 가려야 하는 현실에 화가 나기도 했 다. 영화에서 아쉬웠던 건, 브라를 입지 않는 것으로 자유로움을 느끼고 실천 하는 장면들이 더 있었다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 우리가 쓴 해시태그 + 한 줄 카피

### 겨털소녀 김봉어

# 겨털만세  
# 겨털\_기세등등  
# 겨털이\_좋아  
# 나의\_몸  
# 제모\_그만

SAVE THE DATE

11th

AUGUST

### # 해시태그

# 봉어가\_수영장이\_되었으면\_좋겠다  
# 내\_겨털\_소중해  
# 원효대사\_해골물  
# 겨털은\_모두\_있다  
# 겨털이\_겨털이지\_뭐  
# 타인의\_신체에\_관심\_노노  
# 겨털의\_신세계  
# 다시\_보자\_겨털

### 한 줄 카피

섬광은 거드랑이로부터, 솟아나라 겨털 겨털!

나도 몰랐던 내 몸의 변화, 두려움 대신 웃음으로 맞이하는 방법

여성의 불필요한 수치심이 사라지기를

숨기고 싶었던 내 몸의 빛선 존재. 겨털이 히어로가 되어 당신을 주해 준다.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겨털이 살아있다. 김봉어 영웅담

겨털아 너는 소중한

핑생 제모 안 되는 겨털

나의 몸의 주인은 나. 타인의 시선에 맞추지 말자

## 우리가 쓴 해시태그 + 한 줄 카피

### 츨취브라

#### # 해시태그

#브래지어는\_액세서리일\_뿐  
#가슴은\_신체의\_한\_부분일뿐  
#브라가\_뒤틀린래  
#하든\_안하든\_내맘!  
#브라는\_나의\_선택  
#츨취자\_브라이!  
#브라\_해방

Tag  
#복잡해브라  
#츨취브라

SAVE THE DATE

#브라는\_액세서리다  
#브라는\_개인의\_선택이다  
#노브라\_내브라  
#내맘대로\_하든지\_말든지  
#뒤틀상관\_남이사\_신경꺼  
#생각해브라

August  
2020  
11

#### 한 줄 카피

당신의 가슴은 인병하십니까

벗어브라

브래지어가 당연하지 않은 세상을 위한 작은 한 걸음

이제는 당당하게

브라 입고 츨취봐요

내 브라에 대해 너는 말할 권리 없음

## 누구에게 추천?

겨털소녀 김봉어

-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어린 영혼들
- 여자의 겨털을 보고 웃음부터 터지는 남성들에게 강추
- 어렸을 적 나 자신, 겨털이 멋진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텐데
- 아직 겨털의 존재를 모르는 딸, 겨털을 반갑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 2차 성징이 나타나는 학생들, 성인들도 예전의 모습을 상상하는 기립이 될 것 같다.
- 사춘기 소녀들, 한창 물의 변라르 혼 간스러운 시기에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본 모습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추천. 주인공이 자신을 숨기면서까지 외면했지만 이는 상황을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않았다. 자신을 인정할 순간 그걸 기립로 더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 청소년기 친구들이나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에게 보여주기서 거드강이 털에 대해 보다 친근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타인의 신체에 대해 할부로 비웃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 츄츄브라

- 브라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엄마에게 추천.
- 여름에도 두꺼운 뽕브라를 하는 친구에게 추천. 브래지어를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 자체가 없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에게 새로운 인식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 이 여름날 브라로 힐겨운 여성들과 브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필요한 전 국민에게 추천
- 누구나에게 추천! 남녀노소 모두
- 노브라를 불편해하는 남자에게 추천하고 싶다. 여자에게 브라는 필수품이 아니고, 남자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 브라의 부재를 본인의 불편함이라며 거부하는 사람들께 추천. 당사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야 한다. 눈이야 틀리면 되지 않나?

## 함께 보면 좋아요

---

---

### 영화

---

면도	정지혜, 2017
박강아름의 가장무도회	박강아름, 2015
노브라 해방기	허윤수, 2016
털보	강물결, 2019
주근깨	김지희, 2019
피의 연대기	김보람, 2017
피리어드: 더 패드 프로젝트	레이카 제흐타브치, 2018
슈팅 라이크 벅	거린더 차다, 2002
툼보이	셀린 시아마, 2011

### 책

---

탈코르셋:도래한 상상	이민경
근육이 튼튼한 여자가 되고 싶어	이정연
헝거	룩산 게이
소녀들을 위한 내 몸 사용 설명서	소냐 르네 테일러
외모왜뭐	경진주 외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러네이 앵겔론
여자가 운동을 한다는데	이은경



미디어 속 여성은 대체로 누군가의 엄마 혹은 (남자의) 연인처럼 한정적으로 그려져 왔기에 ‘일하는 여성’의 고민과 삶의 모습을 보기란 쉽지 않았다.

여성영화 속에 드러나는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을 만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미리 볼 영화



#노동 #일상  
#빈곤 #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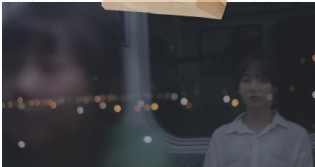
밸브를 잠근다

박지혜 | 2019년 | 대한민국 | 드라마 | 26분 | 전체이용가

홀로 가족의 생계를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도시가스 점검원 진나. 남편은 집에서 잠만 자고, 어린 아들은 엄마가 집에 빨리 들어오기만을 바란다. 가스 점검을 하는 진나의 업무는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스 검침에 비협조적이고 심지어 한 중년 남자는 진나에게 성희롱과 위협을 일삼는다. 위험하고 고된 하루의 끝, 진나는 마지막으로 방문한 집에서 자신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선화를 만난다. 우연히 선화와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진나는 쌓였던 화가 폭발하고...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진나는 남의 밸브를 잠그려 다니느라 정작 자신의 밸브는 잠그지 못한다. 지긋지긋함과 피로함으로 무표정한 얼굴이 디폴트가 되어버린 진나를 너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그저 담담하게 보여준 한혜지 배우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

여름방학숙제

김아현 | 2018년 | 대한민국 | 드라마 | 16분 | 전체이용가



#청년 #꿈  
#성장 #계급

주인공 하늘은 비정규직 인턴 사원으로, 상사 딸의 여름방학 숙제를 대신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정규직’의 압박에 못이겨 얼떨결에 숙제를 받아든 하늘. 색연필과 크레파스 등을 펼쳐놓고 책상에 앉았는데 태권도 도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나타나 불쑥 말을 건넨다.

“나는 발레 말고 태권도가 좋은데!”

그렇게 시작된 둘의 대화, 그리고 둘이 함께 한 아주 특별한 하루. 방학 숙제는 끝이 났고, 하늘이의 ‘내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날들이 될 것도 같다.

진행 푸름

기록 코알라

참여 마르티나, 김혜민, 폴로, 김청화, 미카엘라, Nala, 박원형, 호운, 달그락,  
부영이, 노수인

**푸름** 오늘은 일하는 여자들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먼저 <벨브를 잠근다>부터 이야기해보자.

**미카엘라** 좋으면서도 끔찍했다. 실제로 가스검침원들이 힘들게 일한다는 기사를 많이 봤고 너무 진짜 같다는 생각에 영화가 좋으면서도 언제 끝나나 싶어 자꾸 러닝타임을 확인하게 되더라.

**Nala** 저도 굉장히 잘 봤다. 미카엘라님처럼 끔찍하고 보는 내내 불편했는데, 가스검침원이나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분의 이야기를 문화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정말 몰랐던 거라서. 이런 얘기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주인공이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직면하는데, 검침을 할 땐 집에 없는 사람도 많고, 집에 가도 아이도 남편도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다. 생리하는구나 생각이 들 때도 답답하고, 서서 밥을 먹거나 서서 카스텔라를 먹을 때도 너무 답답하고 불편했다. 이렇게까지 보여주는데구나 싶어서 불편하면서도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했다.

**박원형** 짜증나고 눈물나고 사실적인 현실을 보는 기분이었다. 어제 두 영화를 몰아봤는데 이 영화가 더 좋았던 게, 엔딩크레딧 올라갈 때 짜증보다 눈물이 먼저 났고 되새길수록 짜증이 나더라(웃음). 남편의 폭력은 보이는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성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 감정노동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푸름** 이 영화 보고 나서 집에 가스검침원 오면 바로 문 열어줘야겠다는(웃음) 생각을 했다.

**호운** 저도 인상적으로 봤다. 특히 하루 동안 그 사람이 된다는 느낌, 공포와 여타 다른 감정이 하나하나 와 닿았다. 영화가 억지로 설명하거나 얘기하려고 하

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들을 잘 보여주었던 거 같다. 짧은 영화이면서도 촘촘하게 얘기해주었다는 느낌이다.

**폴로** 가스검침원들이 많이 힘들다는 건 듣기만 했는데 현실로 마주한 느낌이어서 보는 내내 끔찍하단 생각을 저도 했다. 집안일도 여성이 하고, 남편이 아프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저러나 싶기도 하고, 상대 여성의 태도도 약의가 아니었지만, 주인공이 너무 힘들니까 자기를 할퀴는 느낌이 들었을 거 같다. 그걸 인정하고 장난감을 다시 사줄 때 주인공이 성장함을 느꼈다.

**달그락** 주연 배우님 연기에 푹 빠져서 봤다. 주인공과 대조적인 삶을 사는 선화 캐릭터가 여성 속에서도 계급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어서 마음이 아팠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터닝메카드 날개 부러트리느 장면이랑 마지막에 장난감 두 개 사면서 뿌듯해 하는 장면. 보면서 같이 치유되는 것 같았다. 주인공의 자존감을 회복 시켜주는 장면이 희망적이었던 거 같다. 그 과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쓰는 걸로 나타나는 게 조금은 씁쓸했지만 그 장면이 좋았다. 주인공 중심으로 가스 검침원의 고달픈 같은 게 잘 드러났지만, 선화의 다른 면도 보이면 어땠을까 싶었다. 경력단절여성의 단면, 자녀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 같은 발언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더 드러났으면 좋았을 거 같다. 모든 여성들이 보면 좋겠다.

**부영이**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것과 별개로 보는 내내 위악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회사에서 점심 먹으면서 보다가 체했다(웃음). 어느 정도였냐면 중간에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아파트로 걸어 갈 때 남자가 반대로 오는 찐만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 정도였다. 선화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에 혹시 나는 그런 적이 없나 생각해보게 됐다. 또 터닝메카드 두 개 사는 게 너무 걱정이 됐다. 사과를 할 때 드는 비용이 걱정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영화였다.

**노수인** 영화 재미있게 봤다. 앞에서 말씀해주신 얘기들에도 많이 공감하고,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담론 안에서도 섬세하게 고려해야 할 맥락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걸 느꼈다. 어떤 소수자 담론에서도 계급 격차를 무시할 수 없고, 계급과 상황이 비슷하더라도 순한 인상이나 작은 키처럼 개개인의 외적 특성에 따라서도 겪는 상황은 천차만별인 거 같다. 커다란 이론 보다는 찢어지고 분열되는 우리 상황을 고려한 이야기가 나와야 현실과 좀더 잘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또 다른 건, 아이를 키우는 두 엄마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주변을

보면 육아가 여성의 삶에서 차지하는 게 크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 같다. 우리가 아무리 답론을 발전시켜도 아이를 여자가 낳는다면 출발지점이 남성과 같을 수가 없는데, 이런 특성을 어떻게 적합한 방법으로 다룰 수 있을까. 남편이 애 반 낳아, 이럴 순 없으니까(웃음).

**푸름** 혹시 어떤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지?

**호운** 처음에 생리대 챙기는 장면, 생리대 개수를 세는 것과 가스 검침하면서 아이랑 통화하는데 음량을 줄이는 것도 인상 깊었다. 물론 남자 집 찾아갈 때의 공포스러움 같은 것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그 집을 찾아갔을 때 밖에 가방 걸어놨다가 도망치는 장면에서 제가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깜짝 놀랐고 여러 감정이 들었다. 비상구가 비춰지는 장면이 인상적이었고 그 때 그 사람은 어땠을까, 그 감정이 느껴졌다. 나도 누군가의 노동이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됐다.

**미카엘라** 제일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은 주인공이 성희롱 당하고 도망치듯 나와서 휴대 폰을 켜올 때, 최근 전화목록이 모르는 업무상 번호가 가득한 장면이었다. 주인공이 고립되어 있고, 일에 매몰되어 있는 삶이라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데 거 같아서 짧은 장면이었지만 슬프고 인상적이었다.

**박원형**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기억하실 거 같다. 마지막에 주인공 내면의 갈등 풀어가는 장면. 요즘 삶이 팍팍해지니까 사람이 예민해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어떤 부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작은 복수를 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복수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인 거 같다. 저는 결말을 예상 못했는데 진나가 그렇게 갈등을 풀어가는 게 새로웠다. 예민해진 세상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푸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한 발 앞으로 나간다는 게 정말 힘든데 진나는 그걸 해 낸다. 그 점에서 이 영화가 더 특별해지는 점도 있는 것 같다.

**Nala** 저도 터닝메카드 부수고 나서 집에 다시 갔을 때, 문이 열리면서 후다닥 뛰어가는 그 장면이 인상 깊었다. 주인공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내면에서 겪었던 그 부대낌이 그대로인 채로, 그 집주인을 만나서 짐을 회수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못나보였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주인공이 겪

은 거에 비하면 장난감 부순 거 하나가 그 사람이 마치 바퀴벌레처럼 숨어야 하는 일인가 싶었다.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의 인격을 비인간적으로 만들어놓는 건 합법적이고 다른 사람의 재물 손실은 징역감이라는 게 너무 불합리하고 주인공이 숨어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했다. 주인공이 겪은 일은 누가 미안하다고 해줄 것인가, 누가 그렇게까지 반성하고 미안해할까. 그 주인공만 자기를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할 거 같아서 마음 아팠다.

**푸름**      진나만 영화 속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행동을 하는데, 진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는다.

**Nala**     진나한테 가장 잘못된 건 그 구조인 거 같다. 자기를 보호할만한 장치를 마련 해주지 않았으니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플로**      아이의 그림을 보고 나서 장난감 두 개 산 다음에, 장난감을 사다 주려고 하면서 흐뭇하게 미소짓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또 자신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상대에게 참았다가 폭발하는 순간이 좋았다. 자신의 바지를 스스럼없이 주면서 완전한 내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말 한마디로 전혀 아닐 수도 있고, 어찌면 정말 내가 걱정과 선의로 말했던 오지랖이 타인의 마음을 활키는 순간도 있다는 지점을 잘 표현한 것 같다. 그 뒤에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주인공이 멋졌다. 근데 그 남편은 집안일 하나라도 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고, 진나가 성희롱하는 아저씨한테 한 마디도 못하는 게 이해는 가면서도 문이라도 한 번 차주지 못한 게 아쉬웠다.

어찌면 나의 어머니가 겪었을 사회일수도 있다. 나도 알바하면서 남자들이 힘으로 너를 제압할 수 있다는 권위적인 태도를 겪은 적이 있어서 등장하는 남자들에게 경멸감이 들기도 했다.

**노수인**    ‘우리 애 아세요’라는 한 마디가 인상적이었다. 다른 부분은 영화가 정말 사실적이라고 느꼈는데 그 부분에서 이건 영화라고 느꼈다. 언제든 클레임이 들 어올 수 있는 서비스직이고 바지까지 빌려준 사람인데 나라면 정색 못할 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선화씨는 해맑고 나쁜 의도가 없지만 차별하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인데, 정색하면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넘어갔던 수많은 순간들이 생각났다. 어느 순간에 나는 영화처럼 딱 잘라 말하게 될 수 있을까란 생각도 했다.

**부영이** 한 여자분 집에 검침을 갔을 때, 그 분이 ‘나중에 오시면 안돼요?’라고 할 때 계속 ‘저 혼자예요’처럼 위협이 안 된다는 표현을 강조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진나가 다시 전화 집으로 돌아가서 버려진 터닝메카드를 보면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다. 이게 실제 삶이면 얼마나 힘들까,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질까 싶은 생각에 그 두 장면이 기억에 남았었다.

**푸름** 저도 그 생각을 했었다. 혹시 진나가 가져가지 않을까, 터닝메카드를 아이가 좋아했으니까.

**부영이** 달력에 월세 표시가 있는 걸 보니 전세도 아니고(웃음). 마음이 아팠다.

**마르티나** 로봇 날개를 부러뜨리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여자 주인공의 연기도 정말 좋았고. 나는 지금까지 가스 검침원들을 어떻게 대했던가도 생각했다. 지금처럼 코로나시대에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 고용환경 때문에 전염병에 노출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다. 밸브를 잠근다는 게 폭발, 비정상성을 막는 일이므로 사회 규율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 사회의 오지랖을 선화를 통해 잘 보여주었고 촘촘하게 짜인 극본도 좋았다.

**김청화** 여성 가장의 고달픈 인생을 들여다본 거 같았고,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봤다. 아이가 장롱 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영화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주인공 감정선에 크게 이입하게 만드는 배우의 연기가 좋았다. 성희롱 발언을 하는 남성의 얼굴은 분노를 유발하고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니까 굳이 안 나와도 될 거 같다. 그리고 실제 가스검침원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겪는 일들을 고발 가능한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

**호운** 저는 엔딩에서 장난감을 안 사다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나 포장하 하는데, 누구에게 포장될 걸 줄까 궁금했다. 자기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라면 좋지만,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라면 정말 싫단 생각이(웃음). 산뜻한 마무리 이긴 했지만 찝찝한 마음이 들었다. 굉장히 몰입해서 보는 바람에 더 그랬던 거 같다.

**미카엘라**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주인공은 왜 망가뜨린 장난감을 사줄까? 아무도 주인공에게 사과하지 않는데라는 생각이었다. 솔직히 주인공의 상황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받은 상처는 용서하고, 힘든 상황도 버티면서 내가 준 상처나 잘못을 마무리 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싫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

아야 하지. 왜 티끌만큼의 실수도 용납이 안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엔딩이 이렇게 됐을까 궁금했다. 저도 과몰입했다(웃음).

**푸름** 한혜지 배우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애기들을 돌이켜보면 진나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였지만 엔딩만큼은 좀더 희망적으로 그리고 싶으셨던 거 같다. 영화 속 엔딩으로 나와 희망 아닌 희망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싶다.

**Nala** 저도 터닝메카드 두 개 사는 게 아쉬웠다. 영화인데 단편인데(웃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터닝메카드를 여러 개 가진 아이들이 많고, 생일 때 비싼 장난감을 많이 받는 애들도 있고, 그 애는 아마 엄마가 바로 사줬을 거다. 근데 주인공이 아들과 전화통화하면서 작년에 장난감을 못 사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1년에 장난감 하나 사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아이까지 사주는 게 이 사람을 더 옥죄이는 거 같고, 해방감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 영화가 좀 길었다면 이 주인공을 돕는 다른 장치 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다. 단편이기 때문에 터닝메카드 두 개 씩 사는 건 도덕적으로 이 사람을 너무 옥죄이는 거 같다(웃음)

**박원형** 저는 러닝타임이 짧은 게 아쉬웠다(웃음). 더 길었다면 진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거나 인물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달그락**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보면서 비교하고 질투심을 갖게 되는 감정이 이해가 갔다.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랑 엄마가 분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엄마도 아직 미숙하니까. 장난감을 두 개 샀던 마음이 그걸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걸로 이해했다. 고달프지만 무능력한 남편과 아들을 두고 도망칠 수도 없는 주인공의 처지에서 영화 속에서 갑자기 긍정적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일 일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한니까 이해가 갔다.

**노수인** 저도 마지막 장면이 아쉬웠다. 사람은 착한 게 아니라 정의로운 씬답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웃음). 결말을 훈훈하게 마무리 할 수는 있지만, 상업 영화가 아니라 독립영화니까 더 과감하게 현실을 폭로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다. 착하다는 건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

**부영이** 저는 말씀들과 좀 다르게 느꼈다. 장난감 두 개를 사는 장면은 좋긴 했는데, 포장한 한 개가 어디로 갈까 불안하긴 했다. 두 개를 산 건 자존감 회복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분들 반응에 좀 당황했다(웃음). 기분 나쁜 말을 했으

면 그 사람한테 말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약자인 아이의 장난감을 부수고 간 거니까. 사실 아이를 챙기는 마음은 다 똑같고, 진나의 집에도 알파벳 포스터 붙어있었던 걸로 봐서 진나도 아이를 챙기는 나름의 방법이 있었을 텐데 직접적인 장면이 없었던 게 아쉬웠다.

**코알라** 저는 마지막 장면이 도덕적 올바른이라기보단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걸로 보였다. 사실 장난감 되게 조금 망가진 건데, 그걸 살 수도 없는 진나 입장에선 그 장난감이 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는 게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을 거 같았다. 그래서 장난감을 새로 사는 게 오히려 당당하게 빛을 갠아버리는 방식이라고 느꼈다. 선물을 하는 것도 ‘내가 아이에게 주는 거야’라는 당당함처럼 보였다. 물론 집에 가면 남편놈...(웃음)

**푸름** 다들 바랐을 거다. 남편과의 이혼...(웃음)

**코알라** 비교적 젊은 여성이 가스검침원을 한다는 게, 선화가 진나에게 함부로 말하게 된 이유이기도 할 거 같다. 그 나이 대에 왜 이런 일을, 같은 평가. 그런 세심함이 느껴져서 좋았다. 나도 타인의 노동에 대해 함부로 평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들었고.

**호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 화가 누그러졌다(웃음). 하지만 그런 생각에도 안 갠았으면 하는 마음이(웃음).

**푸름** 그럼 이번엔 <여름방학숙제>를 이야기해보자.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업무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상사 딸의 여름 방학 숙제를 해주는 하늘의 이야기다.

**부영이** 소재는 하이퍼리얼리즘인데 전개방식이 현실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다. 물론 의도하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통해 성장하는 서사인 건 알겠는데 좀 클리셰적이었다. 가장 판타지는 마지막에 남자 직원이 ‘정규직인데 어디 가’ 라는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인물은 보통 ‘진짜 여자는 일을 못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웃음) 자기가 그렇게 해 놓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그 태도가 너무 하이퍼리얼리즘이었다.

**노수인** 재밌게 봤다. 이 숙제가 부장의 딸의 숙제니까 근본적으로 남의 얘기를 한다는 게 흥미로웠다. 보통 회사원이든 어머니든,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가질 때 개인이 지워지고 그 위치만 남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다. 어릴 때 있던 자아가 크면서 지워지고 업무하는 사람, 누군가는 ‘상사의 딸’이 된다는 게, 페미



니즘 담론에서 개인성이 사라지는 것과 맞닿아서 좋은 장치라는 생각을 했다.

**달그락** 마지막에 주인공이 나쁜 대리 애길 들으며 회사 때려치는 장면이 통쾌했다. 저런 회사는 정규직이 되어도 고달팠을 거라 생각하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봤다. 아쉬웠던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린 나의 모습이 태권도 얘기할 때 빼면 너무 진중한 캐릭터였던 거였다. 영화가 너무 애잔해지는 거 같아서. 주인공 이외의 인물들에게서 권력이 물고 물리는 상황을 보여줘도 좋았을 거 같다. 부장-대리-하늘-딸-부장딸... 이런 식으로.

**폴로** 부당한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주인공이 안쓰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흘러가니까. 그곳이 아니면 안 될 거 같을 때에도 뒤를 돌아보면 길이 있다는 걸 느꼈다.

**Nala** 짜장면 그릇 치우는 거부터 영화가 시작되는데, ‘여자가 꼼꼼하니까. 나 때도 그랬다’, 그런 말들이 클리셰 같기도 하고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 같기도 했다. <벨브를 잠근다>와는 다르게 ‘어린 하늘’이라는 존재가 장치적으로 시청자를 속시원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즐겁게 볼 수 있었다. 아이들도 좌절을 경험하지만 사고가 간혀있지 않으니까, ‘나 이제 회사 때려쳤는데 뭘 할까?’라는 말에 ‘놀아야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자 같았다. 쉬어야 하는 타이밍에도 다음에 뭘 하지란 생각을 하는 내가 떠오르기도 했다. 그런 말을 속시원하게 해 주고 같이 놀아주는 아이의 존재가 보는 내내 즐거웠다.

**푸름**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다음 걸 해야 된다는 강박에 놀아야 한다는 생각은 편하게 못했던 거 같다. 그래서 그 말들이 위로가 되어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형** 주인공이 자기가 일하는 역할을 알면서도 다른 일을 하는 걸 보고, 이번 우리 주제가 ‘일하는 여자들’인데 이 영화는 잡일하는 여자들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다. 마지막에 주인공이 제 발로 나가긴 하지만 속이 시원하면서도 또 저 자리엔 어떤 약자가 들어가게 될까 하는 씁쓸한 마음도 들었다.

**미카엘라** 사회초년생을 위한 판타지같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다 보고 듣고 겪는 얘기인데, 이렇게 결말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 같다.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단톡방에서 친구들과 욕하면서 ‘이렇게 해 버릴까’ 하는 웃고 떠드는 판타지 같은 영화였다.

- 호운** 저는 이 영화가 몰입이 잘 안됐습니다. 주어진 상황은 알겠지만 대사가 좀 상투적이어서 반감이 있었다. 아이도 그렇고 대리도 그렇고, 대사로 ‘넌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 같아서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영화 속 인물들의 시선 자체가 좀 단순화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의 말도 위로보다는 교훈으로 느껴졌다.
- Nala** 어린 하늘이의 말이 상투적이기도 한데, 어른인 하늘이는 처세도 신경쓰고 스스로도 돌봐야 하고, 미래도 생각해야 하니까, 하늘이 ‘하늘색으로 칠해.’라고 했을 때, ‘몇 시의 하늘색?’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봐주는 게 좋았다. 아이 하늘도 어른 하늘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고민 얘기하는 게 친구 같아 보여서 인상 깊었다.
- 미카엘라** 저는 어린 하늘이가 ‘태권도 어차피 잘 못할 건데’라고 했을 때, 사회초년생 하늘이가 ‘아니야, 잘 할거야.’라고 말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과거의 자신을 다독이는 현재의 자신같이 느껴졌다. 영화를 판타지로 봐서 그런지 재미있었는데, 현실엔 하늘같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란 생각에 슬펐다.
- Nala** 어차피 판타지인데 더 과감하게 복수하듯 그만두는 건 어땠을까 싶었다. 사과즙을 준 건 어떤 의미일까 생각도 들었고, 굉장히 소심하게 사표를 던졌던 게 아쉬웠다. 여자가 어찌고 하면서 막말을 했던 사람에게 그 이상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즙을 준 건 엿을 먹이려는 의도가 어디 숨어 있을까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웃음).
- 푸름** 저도 현실에선 못 보니까 영화 속에서라도 제대로 된 복수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사과즙은 이거나 먹고 떨어뜨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봤다(웃음).
- 폴로** ‘여자라서 꼼꼼한 게 아니라 저라서 꼼꼼한 거예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좋았다. 또 마지막에 품띠를 딸 수 있지만 따지 못했던 아이가, 좋아하던 태권도는 그만하더라도 또 다른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길 바라면서 그 가능성에 배팅하는 배포가 멋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저라면 그렇게 관두지 않고 공론화를 시켜서 상사가 패널티를 받도록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또 태권도에서 왜 검은띠가 아닌 품띠였을까, 여자라서 검은띠까지 따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 푸름**       혹시 태권도를 배우셨는지?
- 폴로**       저는 노란띠까지(웃음). 저도 그 때 생각해보면 주말에 하는 피구 말고는 제대로 못했던 거 같아 아쉽다. 이제 주짓수 같은 것도 배우고 싶다.
- 달그락**     다른 분들 소감을 들으면서 어린 하늘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 같고(웃음). 한편 아쉬웠던 게 ‘여자가 아니라 나라서 잘하는 거다’는 말하는 용기는 높이 샀지만, 만약 나라면 내가 시간을 바쳐서 한 숙제를 대리가 채가는 상황이 너무 속상했을 거 같다. 오히려 ‘나라서 잘한 거다’라고 하면서 정규직 사원이 된 다음에 자기 능력 어필도 하며 승승장구하기 바랐던 마음도 있었다.
- 부영이**     엄마의 경상도 사투리와 태권도 품띠까지만 하게 하는 게 인상 깊었다. 저희 집은 여자라고 못하게 하는 건 없었는데 커서 보니까 꼭 경상도가 아니더라도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여자면 하면 안 된다는 제재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았다. 또 사과즙을 그 놈한테 뿌려버리지(웃음). 분명 엄마가 보내줬을텐데 너무 화가 났다(웃음). 그 사람도 을이긴 하니까 뿌릴 거면 부장한테(웃음). 왜 그렇게 친절하게 회사를 나와야 했을까가 아쉬웠다.
- 김청화**     저런 게 회사생활이라니 끔찍하다. 아이가 개천 밑에서 놀자고 내려오라고 손짓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화였던 거 같다. 실제로 저런 상사를 만난다면 군소리 없이 부당한 지시를 실행해야 할지 고민도 됐다.
- 마르티나**   여자인 게 편가 싶은 생각을 했다. 상사에게 멋지게 그만두겠다고 하는 주인공이 인상적이었고, 여성들끼리의 연대가 보여서 좋았다. 남성들과 어떻게 공존해야할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됐다.

멜브를 잠근다



# 해시태그

- # 왜\_우리의\_삶은
- # 지나가\_행복할\_수\_있기를
- # 보통이\_아닌\_보통날
- # 가스검침은\_어무이다
- # 피하지\_말자\_일\_년에\_두\_번
- # 여성가장 #가정
- # 건강한\_가정
- #버티는\_삶에\_대하여

한 줄 카피

특별 전 멜브 확인!

내 멜브도 소중한

일을 안 할거면 집에서 애라도 좀 잘 돌보기를  
괴롭고 괴롭지만 그래서 꼭 보아야 하는 영화



##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 누구에게 추천?

#### 밸브를 잠근다

- 가스점검을 앞둔 모두에게 추천한다.
- 피용고 피용지만 그래서 꼭 바야 하는 영락.
- 모든 사람에게. 빈곤 문제, 노동자, 계급 다양화 주제가 다 들어있어서 누가 봐도 인상적으로 볼 수 있다. 램부르 오지랴를 부리면 안되는 구나란 생각도 할 수 있다.
- 텀닝 데카드를 큰 고민없이 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
- 아이를 키우는 직장여성에게 추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에 분노나 위안을 나누면 좋을 듯.
- 모든 여성이 봤으면. 서로 이해하고 연대를 해야 한다.
- 가스공사에서 보여줬을 좋겠다. 김칠원들의 신실적인 지위 향상이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 여름방학숙제

- 사회초년생 여성. 현상은 암울해도 영락 속 하늘을 보며 대리만족했으면.
- 사회초년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다. 묘새 너무 어렵니까. 오히려 중장년층. 그 분들은 구조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너 미래의 자식들에게 대문턱일거라는 걸 알고 방지했으면 좋겠다.
- 지친 우리들. '사는 게 힘들지만 힘내봅시다' 이렇게 기운을 넣어주는 거 같아서 보고 기운을 받았으면.
- 이웃거점에서 후려쳐지는 취준생에게 추천. 지금 지원서를 넣는 과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수습기간인데 부당할 것 계속 견디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 전 회사에 끈대 상사. 성차별적인 것 보여주면서 이게 성차별이라는 것 알려주고 싶다.
- 기업 끈대에게 권하고 싶다. 소신있는 을 사원들의 영락을 보면서 반성해볼라고.
- 기업차원에서 교육자으로 활용 필요.

## 함께 보면 좋아요

---

---

### 영화

---

툴리	제이슨 라이트만, 2018
잘 돼가? 무엇이든	이경미, 2004
내 차례	김나경, 2017
카트	부지영, 2014
일하는 여자들	김한별, 2019
히든 피겨스	테오도어 멜피, 2016
그 외 퍼플레이 노동 카테고리의 영화들	

### 책

---

보이지 않는 여자들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
벼랑 위의 꿈들	정지아
타임푸어	브리짓 솔트
긴즈버그의 말	루즈 베이더 긴즈버그, 헬레나 헌트

소녀들의 욕망, 단어 자체가 낯설 정도로 우리 사회는 그들의 욕망에 소녀들의 그것만큼 귀 기울여 본 적이 없다. 그 시절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졌을까. 분명히 '존재'했던 그 시절, 꿈과 호기심, 욕망에 대한 이야기.

## 미리 볼 영화

### 셔틀런

이은경, 이희선 | 2017년 | 대한민국 | 드라마 | 10분 | 전체이용가



#고백

#관계

#키어

#어린이

학교 체력장 날. 13살 버리는 체육시간이 되자마자 물병을 들고 체육선생님 흥이를 찾아간다. 물병을 받은 흥이는 기뻐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나누어준다. 버리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셔틀런을 시작한다.

두근두근. 13살 버리의 요동치는 이 심장이 똬박질 때문인지, 선생님 흥이 때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 그 말로 다 못할 설렘에 대한 예쁘고 예쁜 이야기.

### 하고 싶은 아이

김여정 | 2019년 | 대한민국 | 드라마 | 27분 | 15세



#욕망

#청소년

#나

같은 반 민수를 짝사랑하는 영은. 영은은 자신의 쌍둥이 동생 영지와 민수가 사귀는 사이임을 알게 된다. 민수에 대한 감정을 억눌러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어느 날, 영은은 영지와 민수가 섹스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하면 안 된다’, ‘숨겨야 한다’. 제대로 된 정보와 방법은 알려주지 않은 채 ‘하면 안 된다’는 말만 가득하다. 그 속에서 영은은 질투, 자괴감과 같은 못생긴 마음들로 자신의 마음을 서툴게 표출하게 된다. 사랑은 어떻게 주고 받는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못생긴 마음들을 다루는 데에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었을까? 굳이 하지 않아도 좋을 선택들을 덜 할 수 있었을까?



진행 푸름

기록 코알라

참여 마르티나, 혜진, 노수인, 문소진, 부영이, 희우, 달그락, 김청화, 미카엘라, 호운

- 
- 푸름** 이번엔 여자 아이의 욕망,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하는 영화를 봤다. <셔틀런>을 먼저 이야기 해 보자.
- 마르티나** 영화가 짧아서 그랬는지, 흥이에 대한 버리의 감정을 정확하게는 몰랐다. 왜 흥이가 좋았을까가 궁금했다. 그걸 알았다면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을 거 같다.
- 혜진** 학교가 직장이라, 선생님 입장에서 이입을 해서 봤다. 왜 좋아했냐면, 예뻐서? 얼굴이 개연성이다(웃음). 만약 남학생이 여자 선생님을 좋아하면 첫사랑, 여학생이 여선생을 좋아하면 동경으로 딱 잘라 얘기하는데 이 영화는 사랑이라고 제시해줘서 참신했다. 사랑의 순수함이 느껴졌다.
- 노수인** 비슷한 생각을 했다. 귀여 영화로 느껴지진 않았다. 저는 성별을 바꿔서 상상을 해봤다. 남학생이 선생님 예뻐요라고 하면 느낌이 좀 다른 거 같다. 성별을 반전하면 이 장면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 문소진** 다른 분들처럼 좋아하는 사람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행동이 예쁘게 표현된 거 같아서 재미있게 봤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버리가 선생님한테 물을 주고, 선생님이 그 물을 나눠주는 장면에서 그 물병이 선생님을 향한 마음으로 표현된 게 인상 깊었다. 버리는 흥이에게 아이들 중 한 명일 뿐이라는 부분, 그때의 감정도 느껴지고... 저도 초등, 중학교 때 선생님을 좋아하고 동경했는데, 관심 받으려고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저도 보면서 어떤 점이 귀여 영화일까 생각했다.
- 김청화** 저도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관심이 고파서 열심히 발표를 하고 숙제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선생님의 관심을 향한 버리의 끝없는 달리기도 인상적이고, 버리의 마음을 화면 가득 느낄 수 있었다.

- 부영이** 엄청 귀엽게 봤고. 불도저 연하라고 느꼈다(웃음). 다만 나이에 제약이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지만(웃음). 아가씨의 속희에 가깝게 보였다. 엄청난 정성이다. 덩고, 가방도 무거운데 얼음물을 얼려 오고 먼저 선생님 도와 주고.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보다 순수할 수 있을 거 같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라서 이게 더 귀여영화 아닌가하는 생각도 했다. 조건이 없는 거니까.
- 희우** 잘 봤다. 얼굴이 개연성이라는 말에 공감한다(웃음). 버리의 눈빛이 이야기를 끌어주는 느낌을 받았다. 선생님을 향한 순수한 호의가 가득한 눈을 보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싶어서 버리 말은 배우분에 감탄했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도 떠올랐다. 햇살과 여름의 느낌이 두 작품에도 잘 담겨 있다.
- 미카엘라** 버리의 서툰 짝사랑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저도 물 나눠주는 장면에서 우물쭈물하는 버리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다.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바보짓을 하게 되는 순수함이 사랑스럽게도 했고, 그걸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표현해 낸 점도 좋았다.
- 호운** 그 시절의 순수한 욕망이 청량하고 멋지게 다가왔다. 호루라기 소리가 나고 버리 얼굴이 보일 때, 앉아있는 아이들 모습 속에서 버리의 당당한 모습이 성숙하고 빛나 보였다. 배우 눈빛이 너무 좋았다.
- 부영이** 두 사람이 손을 마지막에 맞잡는데 그 감정이 둘의 감정이 너무 달라서 흥미로웠다. 선생님은 귀엽게 생각했겠지만 애뜻하고 슬펐다.
- 마르티나** 저도 얼음물을 나눠주는 장면에서 그 감정의 크기가 차이를 느꼈다.
- 혜진** 주인공 버리가 너무 힘든데도 달리는데 그 부분이 인상 깊었다. ‘야 그만해도 돼’라고 하는데 기절할 때까지 달리는 모습이 직진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웃음)? 학원에서의 경험이 많이 떠올랐고, 그 때 만났던 귀여 학생들도 생각나고. 청혼도 여러 번 받았던 기억이 났다(웃음). 영화가 짧은 게 좀 아쉬웠던 거 같다. 굉장히 어린 여학생의 성애적인 것을 다루면서 그걸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다뤘다는 게 좋았다.
- 노수인** 저도 짧은 게 아쉬웠는데 감정선을 풀어내는 장면이 없어서 그랬던 거 같다. 감정을 하나로 정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좋았다. 저는 마지막에 선생님 예쁘다고 말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여러분들이 짝사랑이라고 말씀

해주셨는데(웃음), 저는 사랑과 동경과 이런 게 다 복합되어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좋아해요’가 아니라 ‘예뵐요’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걸을 다양하게 하는 대사로 느껴졌다.

**희우** 저는 버리역에 너무 빠져서 봤는지, 버리가 셔틀런 하면서 홍이 선생님을 보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홍이의 입술이나 신체 부위를 보여 주는데 버리 시선처럼 느껴져서 인상 깊었다. 저도 더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영화가 짧은 게 아쉬웠고, 이렇게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품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아서 좋았다.

**문소진** 짧아서 감정선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쉬웠다. 의도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게 됐다(웃음).

**미카엘라** 저도 버리의 감정이 궁금했다. 버리는 선생님이 왜 그렇게 좋았을까, 버리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었다.

**부영이** 마지막 대사가 ‘예뵐요’가 아니라 다른 대사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다른 단어면 어땠을까란 생각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짧은 영화지만 몰입도가 좋다고 느꼈다. 보편적인 경험을 주제로 하신 게 마음에 들었다. 어릴 때 선생님을 좋아했던 경험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참신하고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라 좋았다.

**푸름**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보편적으로 모두 공감할 수 있었던 거 같다.

**마르티나** 버리가 셔틀런을 계속하는데, 그렇게 뛰는 게 그 물을 나눠줘 버려서 속상한 마음을 푸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버리 역할을 맡은 친구가 연기를 잘 한 거 같다. 순수하면서도 인위적이지 않은 느낌이었고, 딱 버리처럼 보였다.

**푸름** 감독님이 배우를 정말 잘 발견하신 거 같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버리를 잘 소화해주었다. 그럼 이번엔 <하고 싶은 아이> 이야기를 해 보자.

**부영이** 짧게 말하기가 어렵다.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였다. 저는 자존감 이야기를 많이 생각하게 됐다. 사실 자기를 사랑했다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또 불법 촬영을 한 대상이 여성이라는 게 놀라웠다. 보통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은 남성이 훨씬 많은데, 여기서 더 나가서 남자를 협박

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게 흥미로웠다. 상대적으로 민수가 ‘뿌러’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부럽기도 했다. 만약 영상을 뿌리면 영은은 영지가 안 보이게 뿌릴까, 이런 생각부터 들면서 슬프기도 했다. 민수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 이 영화가 여성이 이런 협박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쓰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문소진** 저도 부영이님과 같은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영상으로 협박한다는 게 놀랐고 화도 났다. 민수가 여자라면 맘대로 해라고 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재도 동생을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하면서 화가 많이 났다. 걱정도 안하고 어쩔 거렇게 말할까하면서 과몰입하게 됐다(웃음). 또 자기 동생인데 그런 말을 하는 주인공이 밍기도 했고.. 하지만 뒤를 보면 마냥 미워할 수 없다는 게 참 여러 생각이 들게 했다. 주인공의 질투나 열등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섹스에 대한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희우** 제목이 되게 좋았다. ‘하고 싶은 아이’를 계속 떠올리다 보니까 사랑하고 싶은 아이, 이야기 하고 싶은 아이라는 부제를 달고 싶었다. 사랑도 하고 싶고, 섹스의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못하다 보니 이렇게 빼놓아진 영은의 모습이 보였던 게 아닐까 싶었다.

**노수인** 대사 하나를 전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는데 ‘내가 영상을 찍었거든’이라는 대사의 앞뒤로 영화가 너무 달라서 인상적이었다.

**혜진** 영화가 공감이 잘 안 됐다. 저런 삶도 있겠지만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마르티나** 정말 그 남자애를 좋아했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 남자보다는 자매와의 경쟁, 부러움 이런 게 보였던 거 같고, 자신의 욕망을 너무 참다 보니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 거 같은 생각도 들었다. 열등감, 배신감 그런 게 다 복합된 거 같았다. 주인공의 가족 관계가 되게 냉랭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안타깝기도 했다.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 해서 현실감 있었다.

**부영이** 마지막 장면에 모텔에 간 영은을 보여줄 때 창 밖의 달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영은이 정말 이 남자랑 섹스를 했을지 아닐지를 생각하게 했다. 열린 결말로 느껴져서 그 연출이 좋았다.

**마르티나** 저는 영은이 그냥 나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시도는 했지만 하지는 않은 걸로 생각했었다.

**희우** 영은이 욕망에 휩싸여서 섹스를 인터넷에 쳐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잠깐 나오는데도 인상적이었다. 영은이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애들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걸 찾아보려고 할까.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다른 불법적 사이트를 보게 되는 게 갑자기 확 실감이 되면서 공감되고 무섭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혜진** 민수랑 영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곱씹으면서 열 받더라(웃음). 학교 조항들이 다 떠다니고, 재네는 큰일났다하는 생각도 들었다. 영상 폭로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전까지 찌질한 사랑에서 장르가 바뀌어서(웃음). 전 영은이 영상을 안 찍었다고 생각했다. 민수도 그래서 ‘니가 감히 그럴 수 있을 거 같애?’ 라는 뉘앙스를 풍겼고, 울리라고 말은 하는데 표정은 되게 같잖다는 표정이었다(웃음). 영은이 만약 노는 애였다면 저 험박이 더 먹히지 않았을까 싶고, 영은이 비주류이기 때문에 민수도 세계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영상은 예쁘게 찍었는데 실제로 대상이 여성인 상황은 제법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열 받기도 했다.

**노수인** 저는 주인공이 동생이 집에서 섹스하는 거 보고 나서 ‘너 하는 거 봤어’라고 하고 자매끼리 얘기 나누는데 동생이 ‘니가 해봤냐’고 깔보는 장면을 보고 요즘 아이들이 어떤 맥락으로 대화를 나누는 건지를 떠올려봤다. 요즘은 섹스가 저 친구들에게 뭘까? 제가 어릴 때와는 다를 거 같은데, 지금의 여자애들에게는 성 인식이 어느 부분에서 뒤틀러지고 어느 부분은 해방을 느꼈는지 궁금했다. 저는 ‘해 봤다’는 말이 금기인 시절을 지나왔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기도 했다.

**마르티나** 저도 대학교 와서야 성생활 얘기 했던 거 같다. 안 했던 건지, 몰랐던 건지, 관심이 없었던 건지(웃음). 영화 속에선 영은은 모범생 같고, 규율을 담당하는 느낌이었고 쌍둥이 동생은 잘 모르겠어서 배경 설명이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하기도 했다.

**부영이** 이 영화는 생각할 지점이 상당히 많았던 거 같다. 이 영화는 백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었다. 주요 역할도 여성이고 여성이 갈등도 끌고 가고, 그런데 또 아버지의 부재로 그게 해석될까봐 걱정도 됐다. 자존감

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한 영화인 거 같았다. 영은이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민수를 좋아했기보다 인싸인 민수를 동경한 거 아닐까. 영은이는 제도 내에서는 모범생이고 똑똑하고, 동생에게 피임을 했는지도 묻는 걸 보면 계획적인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을 다루거나 남에게 사랑 받는 데는 서툰 사람이라고 느꼈다. 사회에서 외적으로 예쁘다고 규정되지 않으면 자존감을 깎아 내리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됐다. 영지도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언니를 견제하는 거라고 느꼈다. 친구들 초대할 것도 공허함을 감추는 게 아닐까 싶으면서 자존감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 크레딧에 깨알같이 홍대남이라고 써있는 거 하이퍼리얼리즘이라 좋았다(웃음). 영은 얼굴 쳐다보고 표정을 짓는 것도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싫었다. 섹스가 학생 때 하면 천인공노할 범죄인데, 성인이 되면 응당 해야 하는 통과 의례로 취급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기도 했다. 아쉬운 건 영은의 방식이 좀 크리피해서 당해보신 분들은 트라우마 자극할 지도 모르겠단 생각을 했다.

#### 문소진

영은이 민수에 대해 호감을 갖다가 성관계도 찾아보고 자기를 보고, 가슴 만지려다 주춤하고, 결국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성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좋았다. 하지만 마지막 결말이 좀 갑작스러워서 개연성이 부족한 거 같다고 느꼈다. 굳이 성인 남성과 모텔에서, 이렇게까지 된다고? 싶어서 공감이 좀 안 되었다. 주인공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지만 마지막은 너무 이해가 안 돼서(웃음). 너무 의외라 충격적이어서 그게 의도적인 건가 싶기도 했다.

#### 희우

영은의 실수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를 생각해보면 영은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어 좋기도 했지만, 굳이 이렇게 정신적인 충격을 요할 필요가 있나(웃음). 그 점이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영화가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웠다.

#### 푸름

영은이 이해가 되면서도, 불법촬영으로 실제 고통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캐릭터가 그런 말을 하게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인 건 분명한 거 같다.

#### 혜진

캐스팅이 너무 교실에 있을 거 같은 애들이라 사실적이었다. 주인공도 눈치보는 연기를 잘하고, 남자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현실에 있을 법한 학생들이라서 몰입감이 높았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선택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들었다. 주인공이 여자인 이런 스토리를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지만, 남성이면 어떤 스토리가 바로 그려졌다. 좀 아쉬웠던 건 탈선 청소년을 다룬 <박화영>이라는 영화와 비교했을 때, 그 영화는 장편이다 보니 그랬겠지만 그 인물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 영화는 공감하기가 좀 어려웠다.

**푸름** 우리가 지금까지 못 본 캐릭터라 낯설어서 공감을 못하는 건가 싶었다. 남자 캐릭터였다면 좀더 이입하거나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

**노수인** 성별만 바꾸면 참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오히려 미러링에 가깝게 일부러 이렇게 익숙한 플롯에서 성별을 바꿔서 만든 건가 싶었다. 감독이 어느 부분에서는 욕 먹을 걸 알면서도 배짱 있게 밀고 나간 거 같아서 좋기도 했다.

**마르티나** 영화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청소년기의 사랑이라는 것과 행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현실 상황을 잘 적용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주인공이 좀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아무도 없는 빈방을 보면서 허탈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달그락** 저도 이 영화가 좀 당황스러워서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았다. 이 영화가 말하는 게 섹스에 대한 호기심보다 어떤 관계에 대한 궁금함에 가까웠다. 저도 과거에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 청소년들은 어떻게 알아가고 있을까, 해서 답답하기도 했다.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랬다. 제가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얘기해줘야 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미카엘라** 민수의 책상에 엎드려서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영은의 모습에서 짝사랑하는 그 또래의 아이가 보이기도 하고 처연해 보이기도 했다. 지금 침대들이 성에 대해 다들 궁금해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조명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닫는다고? 싶으면서도 사춘기의 서툰은 종잡을 수 없단 생각도 들었다.

**김청화**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게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 마음이 불안했다. 청소년이 갖는 성적 욕망을 보여줘서 좋았고, 마지막 장면은 너무 위태로워보였다. 공교육에서 받는 성교육은 진짜 성교육이 아니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서틀런

### # 해시태그

#달 뜬 첫사랑  
 #그때 그마음  
 #선력질주 한 것처럼 뛰는 마음  
 #선생님 사랑해요  
 #찐사랑

### 한줄카피

그 불, 다른 아이들에게 주지 말아요

선생님이 좋아요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보았을 뜻내나는 사랑이야기

관심이 필요해

최선을 다해 사랑해 본 기억





하고 싶은 아이

# 해시태그

#널\_좋아해\_그래서\_나도\_하고\_싶어  
#누군가\_영은이\_옆에\_있었다라면  
#육망  
#나만\_모르는\_그래서\_알고\_싶은

한 줄 카피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터부시 되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섹스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지 못했어

#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

---

## 누구에게 추천?

### 서틀런

- 열세 살 친구들. 포개들이 보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
- 동료 교사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
- 학부모. 요즘 어린 친구들은 퀴어 문화에 대한 접근이 높은 편인데 포개보다 부모 세대에게는 이야 기하기가 어려운 거 같다. 주변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부모들이 많이 봤으면.
- 영화 관.견, 영화 제작자분들. 첫사랑 얘기는 흔한데 배역이 여성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매력을 느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
-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 퀴어 지인들. 씁사뽀함 첫사랑의 기막도 느껴보고, 자존심 상한 기막과 죽어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 하고 싶은 아이

- 부모님이나 교육자. 성교육에 대한 경각심은 크게 가질 수 있으니까.
- 영원이 같은 아이가 될 나태날 수 있도록 도움 수 있는, 많은 사람들
- 페미니스트 친구들
- 여러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영화와 두루두루 추천하고 싶다

## 함께 보면 좋아요

---

---

### 영화

---

그녀의 육조	박채원, 2018
매미 죽던 날	이지연, 2018
워터 릴리스	셀린 시아마, 2006
너무 밝히는 소녀 알마	야니케 시스타드 야콥슨, 2011

### 책

---

겔스토크	이다
첫사랑	브라네 모제티치
귀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	희정
이것은 성교육 책이 아님	추시타 패션 피버

중년, 특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여성의 욕망이란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을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던 ‘중년 여성의 이름’ 그리고 ‘욕망’ 에 대해 들여다보는 시간

미리 볼 영화

미세스 로맨스

한병아 | 2017년 | 대한민국 | 애니메이션 | 7분 | 전체이용가



“나 아줌마예요.”

“보고 싶어요.”

든암동 아줌마 국희에게 봄비가 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누군가의 말처럼 꿈을 꾸는 일은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일지 모른다고.

‘엄마, 나 계임해도 돼?’

참으로 깨끗한 일상이 낭만부인의 단장을 깨울지라도, 국희의 로맨스가 계속되기를 남몰래 응원하게 된다.

#연애

#꿈

#나

#여행

#중년

상주

차정윤 | 2019년 | 대한민국 | 드라마 | 31분 | 전체이용가



“상주는 갱년기가 찾아온 중년 여성이다. 상주라는 이름 대신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로 살고 있던 그에게 낯선 누군가의 상주(喪主)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무시와 폭언을 일삼는 남편. 생활공간이 ‘집’으로 굳어진 전업주부 상주에게 유일한 낙은 인터넷 카페에서의 ‘소통’이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쪽지가 날아든다. 인터넷 안에서 친분을 쌓아가던 ‘작은별님’에게서다. 남편이 일주일 간 출장을 가게 됐으니 놀러오라는 뜻밖의 메시지에, 상주는 용기를 내본다. 낯선 두 존재의 마법 같은 만남은, 상주가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게 만들어준다. 영화는 상주의 조용한 변화를 통해 누구나 ‘살던 대로 살지 않을 권리’, ‘내가 나 자신일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관계

#우정

#위로

#여행

#중년

#노년

진행 푸름

출연 차정윤(상주 감독)

기록 코알라

참여 마르티나, 혜진, 노수인, 문소진, 부영이, 희우, 달그락, 김청화, 미카엘라,  
Nala, 호운

박성연 배우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상주’라는 캐릭터에 그야말로 찰떡으로 맞았는데?

배우분들 캐스팅을 할 때 오디션을 하지 않는 편이다. 오디션을 해본 적이 없다. 너무 이상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배우를 기다린다. 어떤 배우분이 제 마음에 오기까지 시간을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지낸다.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누군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오래가면서 답답했었는데, 저랑 가깝게 지내는 연극배우 친구가 시나리오를 읽고 정말 딱 맞는 분이 계신다며 박성연 배우님을 이야기해주었다. 그 전에도 출연하셨던 작품들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상주 캐릭터에는 매칭을 시키지 못했다. 그 친구가 알려주고 나서 바로 인터넷에서 선배님 나왔던 사진들을 찾아보는데, 어떤 기사 사진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다. 상주의 닉네임인 민들레처럼 노란색 니트를 입고 계신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이 너무 상주 같았다. 그래서 정말 운명처럼 만나게 됐고, 제가 마음에 들어했던 노란 니트를 상주 마지막 장면에 입고 연기를 하셨다. 성연 선배가 먼저 제안해서 그 옷을 입게 됐다. 나중에 영화 완성 후 깨달은 건데, 닉네임도 민들레이고 그 노란 꽃이 피는 거 같이 옷이 예뻐서 정말 운명과 같았다고 생각한다.

주인공 상주는 갱년기 맞은 중년 여성이다. 왜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잡았는지?

GV에 항상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웃음) 저희 엄마를 위한 영화를 꼭 찍어보고 싶다는 게 이 영화의 씨앗이었다. 엄마가 갱년기를 거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사람인데, 신체 변화까지 오면서 여러 방면에서 힘든 모습을 지켜봤다. 엄마한테 실제로 할 수는 없지만, 엄마가 예상 밖에 설레는 여행을 떠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게 된 이야기다.

## 상주 말고도 엄마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할 예정인가?

지금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엄마 이야기다. 상주보다는 나이가 더 있는 엄마의 이야기이고 원작 소설이 있는 시나리오 작업이다. 소설에는 인물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아서 그 이름을 짓는 과정부터 작업이었다.

## 상주의 딸로 등장하는 윤혜리 배우님도 아주 인상적이었다.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었나?

혜리 배우님과도 운명적으로 만났다. 제가 상주를 준비하고 있을 즈음에, 다른 영화 감독님 응원차 부식 사 들고 놀러갔는데 거기 혜리 배우님이 출연하고 있었다. 촬영 현장에 갔더니, 집 안에 스태프는 촬영하고 있었고, 혜리 배우는 밖에서 대기 중이었다. 근데 배우분 인줄 모르고 제가 혜리 배우님께 안에 찍고 있냐고 물어보고 혜리 배우님도 스태프처럼 찍고 있다고 대답해줬었다. 그만큼 영화 현장에 잘 녹아있던 배우였고, 다른 분들이 나중에 저를 <나가요> 감독이라고 소개하고, 혜리 배우님이 그 작품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고 상주도 같이 하게 됐다.

## 상주와 은지의 침대전을 인상적으로 본 분들이 많았다.

### 촬영 때 디렉팅은 어떻게 했는지?

그 장면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딸의 분량이 적은데도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하는 장면으로 꼽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특히 딸이 책상 앞에 앉아있다가 침대로 굴러들어가듯이 눕는 게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저는 구체적으로 대사를 하실 때의 디렉션 보다는 동선 짜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화면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담겼는데 찍을 때는 너무 힘들었다. 방이 너무 좁아서. 저랑 촬영 감독님이랑 거의 끼어서 촬영했고, 배우분들도 힘들었을 게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집을 빌린 거라 밤이 깊어가니까 나와달라고 하셔서 시간에 쫓기면서 촬영하느라...

## 상주가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산다는 걸 화면으로 잘 보여주는데.. 어두운 부엌에서 끼니를 때운다거나 ‘엄마 친구 없잖아’ 하는 대사 같은 것들. 감독님이 상주라는 캐릭터를 보여주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일단 가장 크게는 상주가 유일하게 소통하는 온라인 상의 공간인 컴퓨터가 집 안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가 연출의 주안점이었다. 이게 저희 엄마, 저

희 집의 풍경이 간접적으로 들어가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엄마는 독자적인 공간이 없고 그 관계를 유일하게 맺는 컴퓨터도 공개적으로 현관 옆 작은 책상 위에 놓여있다. 그 공간 설정이 첫 연출이었다. 촬영 전에 촬영 감독님하고도 많이 얘기했었지만, 장면 활용, 스토리보드 활용에 있어서는 상주의 모습을 덩어리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서 불필요한 클로즈업이나 정면샷은 작은별님 만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자제하는 걸로 정했다.

## 엄마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영화 안에 담고 싶으셨는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름을 잃어버린 중년’과 비슷한데,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어머니, 엄마, 나를 낳아준 사람이니까 엄마라고 부르지만 일상에서는 이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인 거 같았다. 저는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방식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어서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행위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 이름을 되찾고, 누군가가 불러주고 이런 걸 영화 안에 넣고 싶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서도 그렇다. 엄마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의 자식이 있다는 거고, 자기 엄마를 안타깝게 느끼면서 엄마가 다음 생애가 있다면 다음 생애는 내 엄마로 태어나지 말고 나랑 친구로 만나자 라는 얘기를 하는 딸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그게 공감이 됐다. 엄마는 이야기로 풀기에 거대하고 어려운 주제지만 그럼에도 곁에 두고 있는 주제다.

## 그럼 감독님은 엄마를 이름으로 부르시는지?

가끔 그렇게. 휴대폰에 엄마의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

## 상주 시나리오 쓰면서 감독님 어머니가 녹아있는 장면이나 조연 구한 장면이 있는지?

시나리오 쓰면 엄마한테 보여주는 편이다. 그런데 상주는 유일하게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는지 철저하게 비밀로 했던 영화였다. 이 영화가 엄마한테 선물이 되기를 바랐다. 말을 처음에 하지 못한 이유는, 이 영화 속 상주처럼 엄마도 유일한 사회적 관계가 온라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도 했다. 엄마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엄마 얘기를 영화에 쓰는 게. 엄마가 온라인 상에서 관계 맺는 사람 얘기를 가끔 해주시는데, 닉네임이 뭐고 제주도 산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엄마한테 말은 못했지만 상상은 해봤다. 정말 그 사람이 제주도에 살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다른 상상력이 겹쳐지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던 거 같다.

<상주>는 느슨하면서 따뜻해지는 중년과 노년의 연대를 담고 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나?

이야기 안에서 절대 만날 수 없었을 거 같은 낯선 두 존재의 만남과 그로 인한 교감에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 그런 일이 마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영화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안에서도 그런 마법 같은 만남이 종종 일어나면 좋겠다는 꿈을 꾸면서 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만남을 많이 하는 편이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지 않아서 주위 지인들은 걱정하기도 한다 (웃음) 남녀노소불문하고 낯선 두 사람이 뭔가 같이 하고 밥을 먹는다거나 하는 모든 행위가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현실을 닮길 바라는, 이 연대가 갑자기 너무 끈끈하거나 너무 가족같아져 버리거나 하는 건 경계했다. 말씀하신대로 느슨한 연대가 포인트였다.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다 생각하면 무서울 수도 있을 거 같다. 30대 여성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이상한 할머니가 나온다면, 저라면 도망갈 거 같다. 감독님은 현실에서도 낯선 이들과 만나신다니 가능한 상상이 아니었을까 싶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남의 집도 가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혼났다. 관객 중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무슨 일 날 거 같다고. 그렇지만 제가 믿었던 구석은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인물이 거기 있더라도,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는 민들레와 작은 별님의 유대가 쌓여있었을 거라는 거였다. 상주가 위로 받을 순간이 있었고, 그래서 먼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비하인드이긴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작은별님이 할아버지인 것도 있었다. 그건 더 무서웠다. 할아버지인 이유를 찾지 못했고 결국 사라진 버전이다.

펼쳐레이 내에서도 무섭다는 얘길 해주신 분들도 있었다. 그만큼 한국사회에 살아가는 여성들이 수많은 공포와 마주한단 뜻이라 씩씩하기도 했다. 저는 민들레와 작은 별님의 만남이 마법 같은 만남이지만 또 상주의 결심에 의해서 만나는 거라 그 지점이 의미심장하다고 느꼈다. 작은별님인 박해진 배우님은 어떻게 캐스팅 하셨나?

박해진 선생님은 워낙 출연작이 많으셔서 옆두에 두고 있던 배우이긴 했다. 고민했던 건, 아이러니하지만 너무 작은별님 같아서? 너무 귀여우셔서, 잘 맞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다. 연락을 드리고 만나 봐려 나갔더니 시나리오를 읽고 나오신 상태였는데 시나리오 읽고 놀랐다고 하시더라. 놀란 이유는 자



기가 좀 들킨 거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다. 자기도 실제로 작은별님처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까페인 팬클럽이 있는데, 자기도 할머니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나이 속이기도 하고 일부러 젊은 사람처럼 말을 한 경험이 있으신다는 거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신기했다고 말씀하셔서 이 또한 운명 같구나 생각하고(웃음).

작은별님이 상주에게 해주는 말들도 가슴에 와 닿았다. “재미있게 살려면 두근두근하면서 살아” “가끔은 다 놔버려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데, 거창한 말이 아니지만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이 대사들을 어떻게 쓰게 되었나?

시나리오 작업할 때 머릿속에서 제가 지어내는 것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평소에 일상을 살면서 메모를 많이 해 놓는 편이고. 여의치 않을 때는 닥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다큐를 본다. 그렇게 작업하면, 허구를 쓸지라도 힘을 갖고 대사를 쓸 수 있다. 이걸 내가 가짜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누가 하는 말이라라는 걸 생각하고 쓰면 자신감 있게 쓸 수 있기도 하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할머니들이 하셨던 말씀이었던 거 같다.

실제의 말이라 더 힘이 있었나보다. 엔딩 장면도 인상적인데, 첫 장면은 어두운 부엌이고 마지막은 밝은 부엌이다.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는 상주의 모습에서 자신을 돌보고 챙기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상주가 자신의 삶을 살게 되리라는 걸 예측할 수 있기도 했고, 구체적으로 상주가 어떻게 살아나가길 바랐나?

자기 스스로를 위한 밥을 챙기기 시작하는 그 변화가 누군가에겐 작지만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썼다. 앞으로 어떤 순간들이 다가오고 상주가 다이나믹하게 자기 삶을 바꿔서 남편이랑 이혼하고 떠나고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뭘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생각하게 되겠구나,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출했다. 그 장면이 사실은 영화 촬영을 할 때는 ‘상주가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는다’ 한 줄이지만 찍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배우도 긴장했던 장면이다. 마지막 장면인데 어떻게 밥을 먹어야 상주가 씩씩해 보이나, 성연 배우님이 많이 고민하셨고, 기술파트 스태프들은 어떻게 찍어야 상주를 아름답게 찍나 고민하면서 조명도 많이 신경 썼고.

마지막 잠깐 등장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 만든 장면이었다는 게 새삼 느껴진다. 박성연 배우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배고픈 상태에서 찍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식사를 안하고 오셨다(웃음).

### 촬영장 에피소드?

배우를 비롯해서 스태프들이 너무 고생하고, 너무 치열하게 찍었다. 경북 상주에서 촬영했는데, 추석연휴에 촬영하는 바람에 모든 현장 사람들이 추석 연휴 반납하고 찍었다. 9회차 촬영으로 단편치고 회차가 길었다. 그 사이에 쉬는 시간 없이 9회차를 내달려서 다들 정신력으로 버텼다. 기억에 남은 건 상주에서 촬영할 때 작은 별님의 집이다. 그 집도 운명처럼 구했다(웃음). 시골집 찾으러 엄청 돌아다녔는데도 못 구하면서 시골마을을 배회하는데, 저희 차를 할머니 두 분이 세웠다. 집이 저 원데 태워달라고, 일종의 히치하이킹이었다. 그 두 분을 태우고 그 집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집이었다. 그래서 너무 놀라기도 했고 이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촬영 얘기는 안 드리고 그냥 모셔다 드렸다. 그 뒤에 또 내려와서 여러 번 설득 끝에 빌린 집이다.

상주는 운명으로 완성된 영화인가(웃음)? 상주가 길 묻는 장면에 등장한 할머니도 즉석 캐스팅이라고 들었는데?

그 할머니도 정말 좋다. 촬영하는 집 윗집 사시는 할머니였다. 아무래도 촬영이 조용한 시골에 폐일 수 있어서 저희 피디님과 인사 드리고 돌아다닐 때 만났다.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라 영화에 담고 싶어서 말씀 드렸고.. 정말 뭐랄까 연기도 너무 잘해주셨다. 할머니께서는 열심히 촬영해주셨는데 저희가 땅바닥에 앉아서 촬영하고 이러는 게 안돼보였는지 안쓰럽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 고생을 왜 하는 거냐고 물으셨던 기억이 난다(웃음).

###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상주의 명장면은?

밤에 작은별님과 상주가 누워있는 장면. 이 장면이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화면이 잘 나오는 극장에서 보셨을 때 되게 좋다. 극장 따라서도 화면이 어두우면 잘 안 드러나는데, 그 때 작은별님이 상주 이름을 불러줄 때 상주 표정과 눈빛이 참 좋다. 눈물이 떨어질 거 같은 그런 눈이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번 주제인 ‘이름을 잃어버린 중년’에는 ‘이름을 되찾은 중년’이라는 부제를 붙이고 싶다. 감독님은 이름을 되찾은 여성을 위해 한 말씀?

제가 감히...(웃음). 이 답변에 국한되지는 않더라도, 제가 마음을 쏟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사람들도이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사는 누구나 자기가 지금 처해있는 환경이 어떻지라도, 다 살던 대로 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인 거 같다.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고, 그걸 잊고 지내거나 잊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게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각자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뭘 싫어하는지 귀 기울이면서 살면 내일이 오늘보단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삶은 결국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할머니는 원래 자신의 마지막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인지?**

예상하고 계셨을 거 같다.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아픈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다. 곧 돌아가실 분처럼 그리고 싶진 않았다. 그렇지만 스스로는 어느 정도 예견을 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과 현재의 외로움과, 상주라는 팬찮은 사람이 한번쯤 여행을 와도 좋겠다란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감독님의 한줄 카피는?**

“상주가 작은별이 되기까지” 영어제목이 finding little star다. 물리적으로 작은별을 찾아가는 거기도 하고, 반짝거리는 별이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중의적인 의미를 영어제목에 담았다. 또 하나의 의미는 작은별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 영화에는 간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카페 매니저가 작은별님 얘기를 상주에게 물었을 때 답변을 타이핑하는 거 촬영은 했었다. 영화에 최종적으로 실지는 않았지만... ‘작은 별님은 정말 별이 되셨다’라고 썼었고, 그래서 상주가 언젠가 하늘의 작은별이 되기까지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기도 하다.

상주가 작은별님 집에 가서 놀랐을 때, ‘뭘 기대하고 왔는데’라고 말하는데,  
이 대사에 감독님이 답변을 해주신다면?

상주가 기대하고 갔던 건 30대 젊은 새댁이니까 속으로 그랬던 풍경이 있었을 거다. 자기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본인이 언니처럼 두런두런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하는 장면을 기대하고 가지 않았을까 싶다.

작은별님이 혼자 나가면서 차에서 시동 걸려고 할 때, 빨래줄이 화면에 등장한다.  
그 장면의 의도가 궁금하다

그 장면은 편집을 할 때 여러 아이디어가 모여서 만들었다. 빨래하는 인서트를 어디에 넣을지 계산 못하고 찍어냈던 장면이다. 빨래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별이 예쁘고 바람에 나무끼고 하는 모습이 좋았다. 상주가 작은별님한테 다가가기 전에 뭔가 환기가 될 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빨래 장면을 넣고 개 소리를 넣으면서 좀 정신없는 때에 - 집에서 나와서 차까지 가는 동선을 보여주지 않고, 시간을 건너뛰어서 차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상주가 결국 상주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누구에게 연락을 받고 갔을 까도 궁금했다.

영화상에는 행정적 과정이 생략되어있다. 예상치 못한 자리에 상주가 앉아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이후에 작은별님이 사용하시던 노트북, 활동했던 곳,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이 상주인 걸 보건소 직원이 봤으니까 단서는 있지 않았을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거 같더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

## 참여자 소감 게시판

단편영화가 부담 없이 볼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 해줘서 너무 좋다!

많은 것 느낄 수 있던 프로그램이다. 여성 이슈, 영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임이 더 많아졌으면!

일상에서의 고민거리를 많이 던져주어서 좋았다.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어렵게만 느꼈는데 생략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기뻐했다.

공부도 되고, 문학체험도 되었던 시간이다.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서 영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안전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들을 수 있었다.

비대면이라는 게 아쉬웠다. 얼굴 보며 열심히 맛장구 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 같다.

선별된 큐레이팅으로 좋은 영화를 볼 수 있었고, 짜임새 있는 진행으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영화 서사를 느끼는 감각이 달라진 건 이번 프로그램 덕분이 것 같다.

여성 영화를 보고 여성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거다!

처음엔 비대면이 답답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업이나 나이 얼굴을 밝히지 않고 대략한 것들이 좀 더 타인에게 선입견이 생기지 않아서 좋았다. 독립영화를 볼 기회가 되었다.

**참여자** 김청화, 김혜민, 노수인, 달그락, 마르티나, 미카엘라, 박원형  
부영이, 소진, 심효선, 준, 플로, 혜진, 호운, 희우, Nala

**기록 및 정리** 코알라

**모임진행** 푸름

**영화상영** 퍼플레이 [purplay.co.kr](http://purplay.co.kr)

## 202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지원사업 <비대면 페미씨네> 기록집

기획 신지민

디자인 작당모의자

펴낸곳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enlib.or.kr](http://enlib.or.kr) 02-6341-6400

후원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